

밴쿠버 동계올림픽

지난 2월 13일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린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3월 1일 다음 개최지인 러시아의 소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금6, 은6, 동2개로 동계 스포츠의 강국이라고 불리는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꺾고 종합순위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선수단의 경기는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시청자들에게 전송됐으며, 국민들은 그들의 땀과 눈물에 환호와 격려를 보냈다.

동계올림픽 개요

- ▷ 대회 기간 : 2010년 2월 12일 ~ 28일(17일간)
- ▷ 대회 장소 : Vancouver 및 Whistler 일대
- ▷ 종목 :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 86개 이벤트, 258개 메달
- ▷ 80여 참가국, 4500명의 선수 및 경기 임원
- ▷ 20개의 HDTV FEEDS를 전 경기에 걸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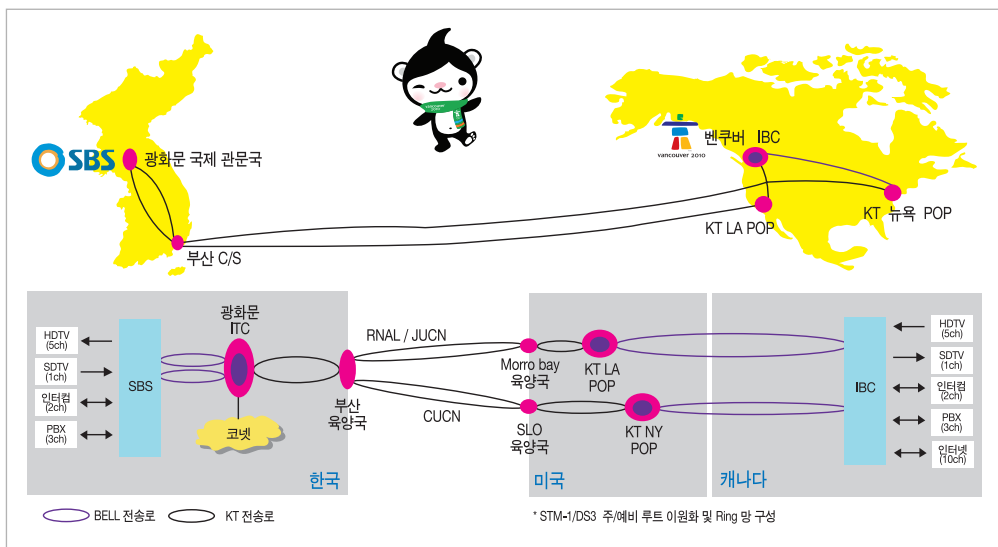


SBS IBC 시스템 개요

화선운용

KT의 망을 통하여 한 루트는 '밴쿠버 → LA 경유 → 서울 KT ITC → SBS'로 이어지는 라인과 또 다른 루트는 '밴쿠버 → 뉴욕 → 서울 KT ITC → SBS'로 구성되었다. 주 라인은 STM-1로 155M급을 사용하고, 예비라인은 DS-3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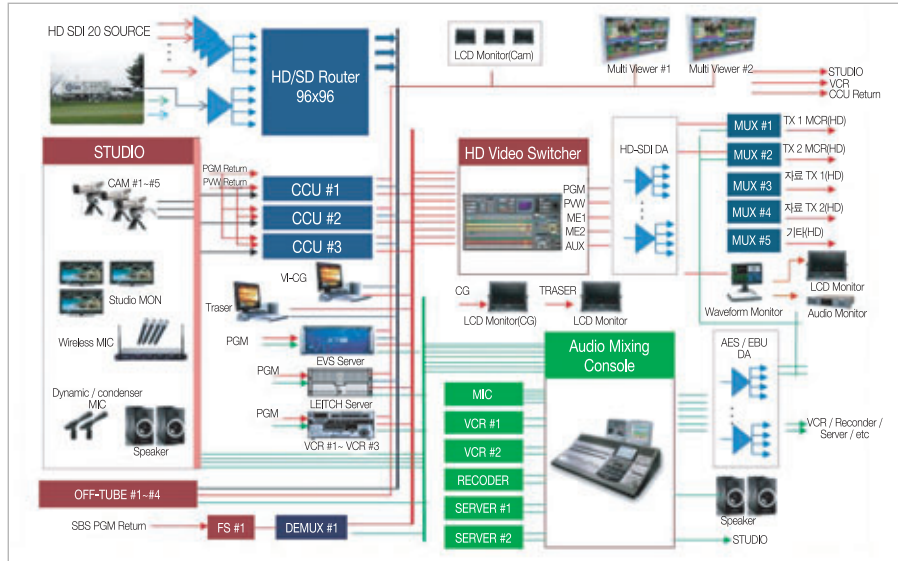
세부적인 구성은 HD MPEG4(H.264):5CH, SD MPEG2:2CH(Return), AUDIO(3.4Khz):2CH 일반전화 or VoIP:8CH, Internet:10CH로 구성하였다.



[중계 전송로]

SBS IBC MCR

HD SDI 20FEED IS가 HBS로부터 공급되며, 피겨 및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Pacific Coliseum 경기장에서 UNI 중계차(SBS가 임차한 중계차) 소스가 들어온다. 스튜디오는 카메라 3대, MCR 내에는 4IN 2OUT의 XT2 SEVER 2대가 생방송을 커버하고, 송출 VCR 3대(HDW-M2000 1대, XDcam 디스크 송출이 가능한 PDW-1500 2대 운용), LIETCH SERVER 5대, M-CG 및 TRACER가 운용되며, 6채널 송출망은 생방송에 TX1, 2, 3, 4 자료송출에 TX5, 6을 사용하였다.



[SBS IBC MCR 운용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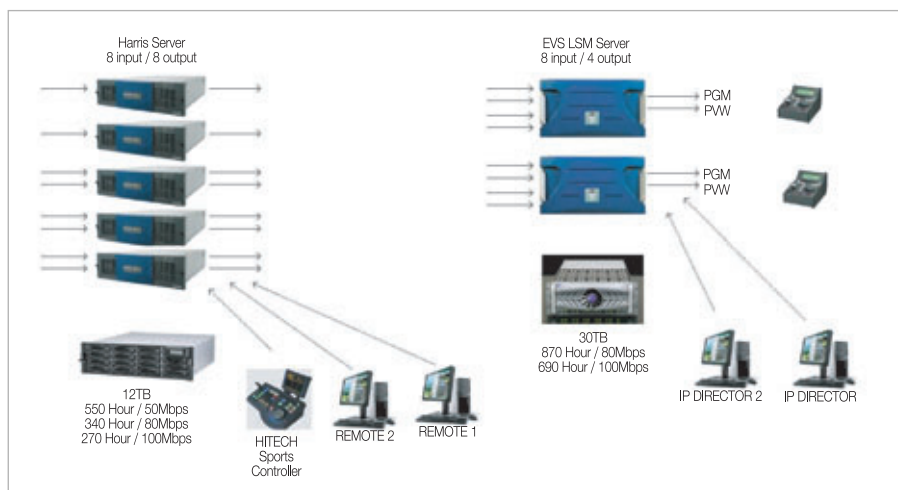
IBC 서버 운용

▷ EVS 서버

- XT2 서버 2대, Remote D 2대 : 인제스트 8ch, 플레이아웃 4ch
- IP Direct 2대 : 브라우징, 클립 편집, 플레이리스트, 데이터 관리
- Xfile 1대, XStore 1대, SAN Storage : 데이터 백업, 관리

▷ Harris 서버

- Harris 서버 5대 : 인제스트 8ch, 플레이아웃 10ch
- Harris Remote 2대 : 인제스트 8ch, 플레이아웃 4채널 제어
- Sports controller 1대 : 플레이아웃 4ch 제어, Slow motion, Playlist 가능
- Velocity NLE : Instant editing 가능



[Harris 서버와 EVS 서버]

IBC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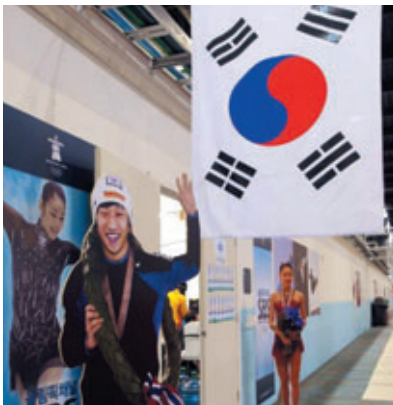


[부조 사진으로 PD, 엔지니어, CG, 작가들이 한마음으로 방송제작]



[스포츠 제작, 보도, 교양, 라디오 등 사무실을 나눠서 쓰는 모습]

IBC 입구에는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할 때마다 선수의 이름과 메달 종류를 프린트해 붙여 놓았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고, 지나가는 외국 방송사 관계자들도 부러워했다. 스튜디오는 후면에 9개의 대형 PDP를 이용해 설치하였고, 전체 화면에 3개의 입력을 다르게 넣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SBS IBC 입구]



[스튜디오]

한국선수들의 IBC 방문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섭외를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다. 스포츠, 교양, 보도, 라디오에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에도 체육회 등의 일정이 있어 급히 이동하느라 같이 사진을 찍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김연아 선수는 '김연아의 트리플러브' 제작을 위해 IBC를 방문했다. 김연아 선수는 IBC를 방문한 여러 인사 중 가장 주목을 받았다.





모굴스키 국가대표인 서정화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깜짝 데뷔했다. 서정화 선수는 전날 열렸던 모굴스키 예선전에서 0.043 점차로 아깝게 결선 진출에 실패하여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날은 밝은 모습으로 IBC를 찾아 풍부한 경험, 선수입장에서의 깊이 있는 해설로 박진감 넘치게 해설했다.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선수는 대회 초반 금메달 소식에 동계올림픽 붐업에 일조했다. 라이브 중계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했다. 선수들이 입담이 좋아서 즐겁게 제작을 했고, 이상화와 모태범이 결혼한다면 한국 빙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승훈 선수의 멘트는 재치가 넘쳤다.



[김연아 선수]



[서정화 선수]



[이규혁 선수 자신의 모형과 함께]



[스켈레톤 조인호 선수, 루지 이용 선수]

출장을 마치고

출장가기 전 어느 선배가 밴쿠버는 천국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라면서 잘 다녀오라고 한 말이 생각난다. 겨울비가 자주 오는 밴쿠버지만 자연환경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단독방송이라 중계시간이 많아, 아침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2팀이 2교대로 근무하느라 여유가 없어 밴쿠버 곳곳을 다녀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비, 시스템들도 다뤄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